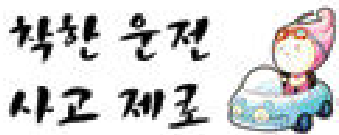


사회

사고다발 상위 2곳이 교차로 신호위반 '뺑' 하면 대형참사



교차로 신호 지키기

광주의 교차로는 지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장소로 꼽힌다. 특히 출·퇴근 시간의 교차로는 신호위반과 '꼬리틀기' 등으로 인해 아수라장으로 변하기 일쑤다. 광주의 경우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 가운데 2곳이 모두 교차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광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0건 중 1건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차로 질서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8월 말까지 광주에서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806건으로, 전체 사고(5천853건)의 13.6%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9명이 숨지고 1천546명이 크고 작

은 부상을 입었다. 특히 광주는 지난해 교통사고 다발지점 상위 2곳이 모두 교차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 시 서구 유덕동 계수사거리 등 교통사고 다발지점 2곳에서는 총 72건의 사고가 집중됐다. 사고 원인은 대부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유덕동 계수사거리 등 8월까지 806건 발생 심야에 특히 조심해야

미준수로 나타났다. 광주가 '교통사고 1위 도시'의 오명을 벗기 위해 신호 등 기초 법규부터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새벽 1시40분께 광주 서구 오치동 북부경찰서 인근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승합차가 충돌, 운전자 A(여·46)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사고는 심야에 교차로를 지나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광주일보 공동 캠페인

던 운전자들이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일엔 광주 서구 하남산단 9번로 교차로에서 K(45)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J(38)씨가 운전하던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해 강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등 교차로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교차로에서는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 사고로 직결될 수 있으며, 이는 운전자 등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교차로에서의 교통신호 위반은 자칫 연쇄 충돌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강도높은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고질적인 사고유형 중 하나인 신호위반 차량(이륜차)에 대해 9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교통신호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3~5세기 목조우물 발굴

광주 평동산단서, 수레바퀴자국·무덤 등도

광주시 광산구 월전동 평동2차산업단지에서 3~5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우물과 무덤 등이 발견됐다. 호남문화재연구원(원장 임영진)은 24일 "지난해부터 계속된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에 이르는 집터, 무덤, 수레바퀴자국, 도랑, 토기 등이 발굴됐다"고 밝혔다.



호남에서 완전한 형태로 첫 발굴된 목조우물.

특히 나무 여섯 단을 쌓아 만든 높이 140cm의 목조 유물이 당시 건축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에서 완전한 형태의 목조 유물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영진 원장은 "이번에 발굴된 무

덤은 영산강 중상류 지역의 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는 연구자료이다"면서 "이곳이 고대문화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욱기자 kroh@kwangju.co.kr

'생태문화 희망길' 역사·문화자원 연계

광주시에 추진 중인 '생태문화 희망길'〈광주일보 6월24일자 1면〉은 강길과 생태숲길, 옛길, 도시 숲길, 옛 마을길 등으로 구분, 생태·문화·역사자원과 연계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생태문화 희망길 조성 포럼'에서 용역을 맡은 조성민 호남대학교 교수는 "광주지역의 탐방가능한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연계시키기 위해 해서는 각각의 자원에 맞게 길의 명칭을 부여하고, 도입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미경 스토리텔링학 박사는 "신창동 선사유적지 등 14가지 자원을 분포돼 있는 각 자치구에서 생태문화 희망길을 조성하고, 자원의 역사나 내면에 스며

든 이야기를 현대적 의미에서 재조명해 시민이나 외국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태후 호남대 조경학과 겸임교수는 광주천과 황룡강 등에 왕버들이나 뽕버들, 노랑꽃참조 식재를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는 이날 포럼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광주 생태탐방·문화체험벨트 조성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태문화 희망길은 도시 속에서 도보를 통한 자연과 역사문화자원의 연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길과는 차별화되며, 장기 간에 걸쳐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우울한 가을하늘, 광주 평동산단서, 수레바퀴자국·무덤 등도, 광주시 광산구 월전동 평동2차산업단지에서 3~5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우물과 무덤 등이 발견됐다. 호남문화재연구원(원장 임영진)은 24일 "지난해부터 계속된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에 이르는 집터, 무덤, 수레바퀴자국, 도랑, 토기 등이 발굴됐다"고 밝혔다.

수능 신종플루 환자 따로 시험

예비소집 때 발열검사

11월12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수험생은 분리 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을 봐야 한다. 모든

시험장에는 의료진이 배치되고 수험생은 시험 전날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해 이런 내용의 2010학년도 수능시험 대책을 마련하고 시험장이

설치될 학교에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수능 당일 전국 1천200여개의 시험장에는 신종플루 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한 분리 시험실이 2개씩 설치된다. 또 시험 당일 병원에 입원 중인 수험생을 위해 전국 79개 지구별로 신종플루 치료 거점병원 1곳씩을 지정, 1개 이상의 병원 시험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Good Hearing Aids'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by KJHR. Includes slogan, benefits (1. Very good hearing, 2. Safe, 3. Affordable), website (www.kjhr.com),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Matchmaking Technology Service Program Business Briefing Meeting' (맞춤형 기술서비스 프로그램 사업설명회 개최 알림). Includes details about the meeting, objectiv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committee.